심화

2023년도

제6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지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반달 돌칼로 벼를 수확하였다.
②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③ 반량전, 명도전 등 화폐를 사용하였다.
④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하였다.
⑤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다.

2.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호의 수는 5천인데 대군왕은 없으며 읍락에는 각각 대를 잇는 우두머리가 있다. …… 여러 읍락의 거수(渠帥)들은 스스로를 삼로라 일컬었다. …… 장사를 지낼 때에는 큰 나무 곽을 만든다.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며 한쪽을 열어 놓아 문을 만든다. 사람이 죽으면 임시로 매장한다. 겨우 시체가 덮일 만큼 묻었다가 가죽과 살이 다 썩은 다음에 뼈만 추려 곽 속에 넣는다. 온 집 식구를 하나의 곽 속에 넣어 두는데, 죽은 사람의 숫자만큼 나무를 깎아 생전의 모습과 같이 만들었다.
>
> –『삼국지』 동이전 –

①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②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③ 범금 8조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다.
④ 여러 가(加)들이 각각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⑤ 정사암에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3.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② 
③ 
④ 
⑤ 

4. 밑줄 그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 기해년에 백제가 맹세를 어기고 왜와 화통하였다. 왕이 순행하여 평양으로 내려갔는데, 신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아뢰기를, "왜인이 국경에 가득 차 성지(城池)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 귀부하여 명을 받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 ○ 경자년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군대가 남거성을 거쳐 신라성에 이르니 왜적이 많았다. 군대가 도착하자 왜적이 퇴각하였다.

①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②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③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④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⑤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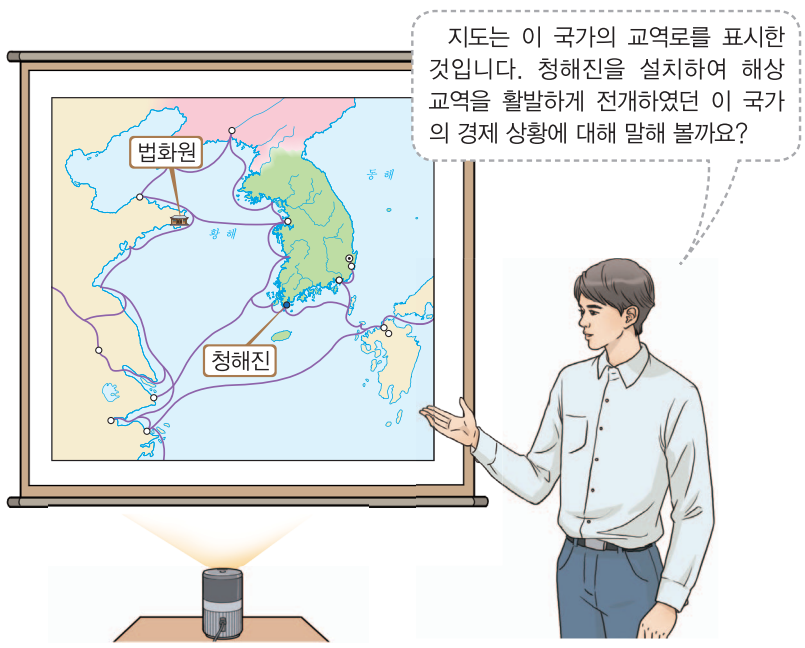
제6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5. (가) 왕의 재위 시기 삼국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고구려 –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대군을 격파하였다.
② 백제 –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였다.
③ 백제 – 계백이 황산벌에서 군대를 이끌고 결사 항전하였다.
④ 신라 –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⑤ 신라 – 사찬 시득이 기벌포에서 당군에 승리하였다.

6.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삼한통보와 해동통보를 발행하였어요.
②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어요.
③ 고구마, 감자 등의 구황 작물을 재배하였어요.
④ 특수 행정 구역인 소에서 여러 물품을 생산하였어요.
⑤ 조세 수취를 위해 3년마다 촌락 문서를 작성하였어요.

7. (가), (나) 사이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선덕왕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자, 여러 신하들이 회의를 한 후에 왕의 조카인 김주원을 옹립하고자 하였다. 주원의 집은 왕경에서 북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마침 큰비가 와서 알천의 물이 넘쳐 주원이 건너 오지 못하였다. …… 여러 사람들의 뜻이 모아져 김경신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삼국사기』–

(나) 나라 안의 모든 주군에서 공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 창고가 텅텅 비어 나라 재정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 독촉하니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에 근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삼국사기』–

① 계백료서를 읽는 관리
② 녹읍 폐지를 명하는 국왕
③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학생
④ 초조대장경을 조판하는 장인
⑤ 김헌창의 난을 진압하는 군인

8.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한국사 모둠별 탐구 활동 안내

◈ **주제**: (가)

◈ **방법**: 문헌 조사,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하여 아래에 제시된 문화유산을 탐구한다.

◈ **모둠별 탐구 자료**

1모둠	2모둠
 ▲ 크라스키노 성 유적 출토 연꽃무늬 수막새	 ▲ 콕샤로프카 평지성 온돌 유적

① 백제 문화의 국제성
② 신라와 서역의 교류
③ 가야 문화의 일본 전파
④ 고려에서 유행한 몽골풍
⑤ 발해와 고구려의 문화적 연관성

9. 밑줄 그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②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③ 후당과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④ 광평성 등의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⑤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10.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2점]

> 문종 3년 5월 양반 공음전시법을 정하였다. 1품은 문하시랑평장사 이상으로 전지 25결, 시지 15결이다. 2품은 참정 이상으로 전지 22결, 시지 12결이다. 3품은 전지 20결, 시지 10결이다. 4품은 전지 17결, 시지 8결이다. 5품은 전지 15결, 시지 5결이다. 이를 모두 자손에게 전하여 주게 한다. …… 공음전을 받은 자의 자손이 사직을 위태롭게 할 것을 꾀하거나 모반이나 대역에 연좌되거나, 여러 공죄나 사죄를 범하여 제명된 것 이외에는 비록 그 아들에게 죄가 있더라도 그 손자에게 죄가 없다면 공음전시의 3분의 1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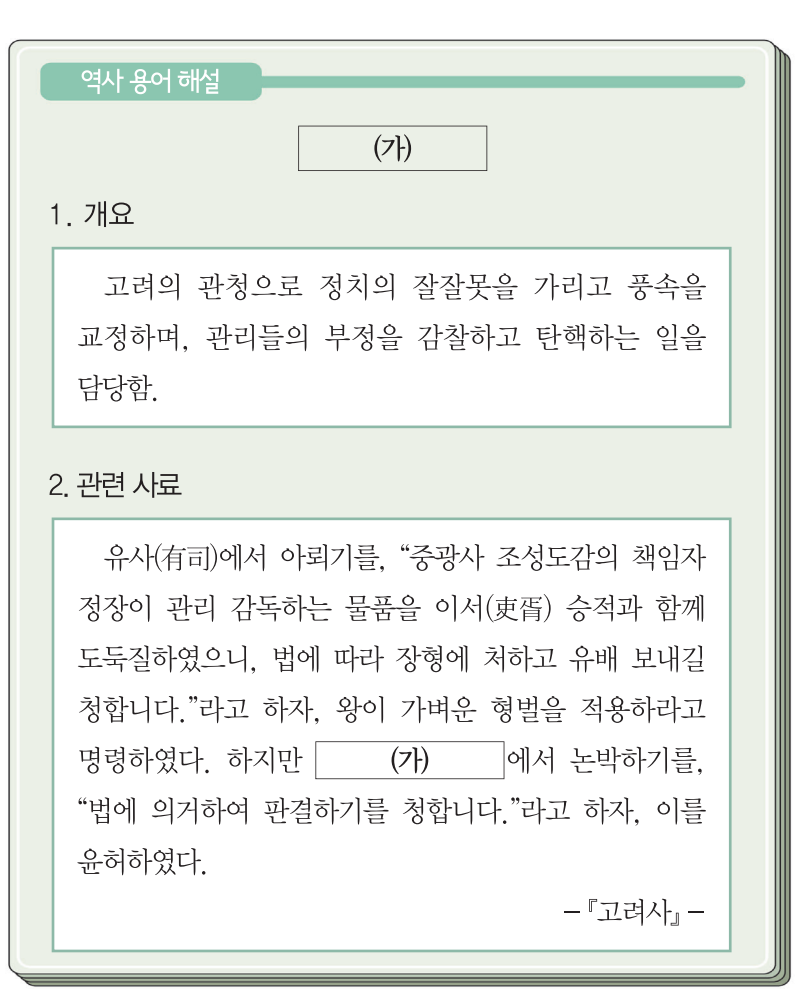
①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되었다.
②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③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 상점이 운영되었다.
④ 경시서의 관리들이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였다.
⑤ 설점수세제의 시행으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되었다.

11.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⑤ (다) – (나) – (가)

12.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무신 집권기 최고 권력 기구였다.
② 원 간섭기에 첨의부로 격하되었다.
③ 고려 말에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었다.
④ 관직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⑤ 서얼 출신의 학자들이 검서관으로 기용되었다.

제6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13. (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 기〉

ㄱ. 양규가 무로대에서 적군을 물리쳤다.
ㄴ. 김윤후가 충주성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ㄷ. 송문주가 죽주성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ㄹ.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 9성을 쌓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자, 조정 신하들이 대궐에 나아가 축하하였다. 경대승이 말하기를, "임금을 죽인 사람이 아직 살아 있는데, 무슨 축하인가?"라고 하였다. 이의민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여 날랜 사람들을 모아서 대비하였다. 또한 경대승의 도방(都房)에서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죽일 것을 모의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의민이 더욱 두려워하여 마을에 큰 문을 세워 밤마다 경계하였다.

① 묘청 등이 서경 천도를 주장하였다.
② 최충헌이 왕에게 봉사 10조를 올렸다.
③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왕을 폐위하였다.
④ 이자겸과 척준경이 반란을 일으켜 궁궐을 불태웠다.
⑤ 김보당이 폐위된 왕의 복위를 주장하며 군사를 일으켰다.

15. 밑줄 그은 '왕'의 재위 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이자춘이 쌍성 등지의 천호들을 거느리고 내조하니 왕이 맞이하며 말하기를, "어리석은 민(民)을 보살펴 편안하게 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았는가?"라고 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기철이 쌍성의 반민(叛民)들과 몰래 내통하여 한패로 삼아 역모를 도모하려 한다'고 밀고하였다. 왕이 이자춘에게 이르기를, "경은 마땅히 돌아가서 우리 민을 진정시키고, 만일 변란이 일어나면 마땅히 내 명령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이자춘이 명령을 듣고 곧 행군하여 유인우와 합세한 후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격파하였다.

① 초량 왜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② 내의원에서 동의보감을 읽는 의원
③ 주자감에서 유학을 공부하는 학생
④ 전민변정도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농민
⑤ 황룡사 구층 목탑의 건립에 참여하는 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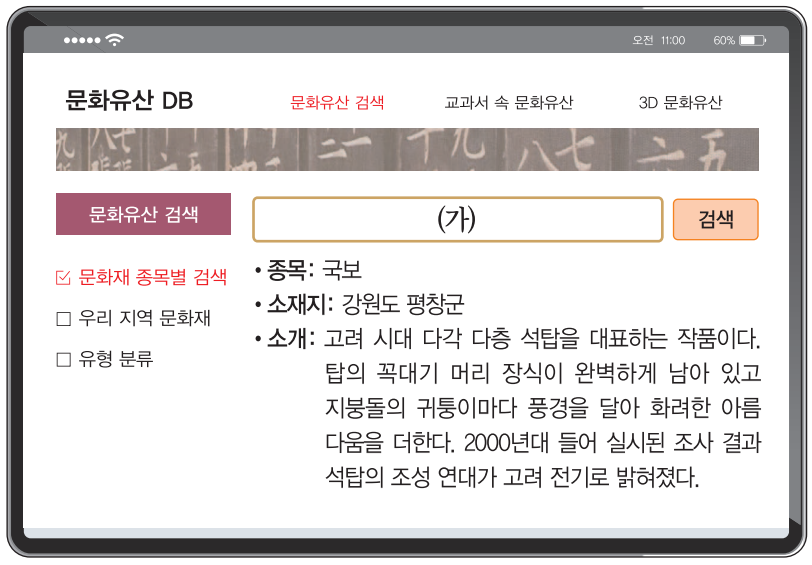
16.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
②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여 불교 교단 통합에 힘썼다.
③ 선문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④ 권수정혜결사문을 작성하여 정혜쌍수를 강조하였다.
⑤ 보현십원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제6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17.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② 

③ 

④ 

⑤ 

18. 다음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12. 이성계의 집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다고 말하자 이성계가 크게 화를 낸다.

이성계: 대신을 함부로 살해하였으니, 나라 사람들이 내가 몰랐다고 하겠느냐? 우리 가문은 평소 충효로 소문났는데, 네가 감히 불효를 저질러 이렇게 되었구나.

이방원: 정몽주 등이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려 하는데, 어찌 앉아서 망하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효입니다.

①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렸다.
② 권근 등의 건의로 사병이 혁파되었다.
③ 안우, 이방실 등이 홍건적을 격파하였다.
④ 망이·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하였다.
⑤ 쌍기의 의견을 수용하여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19.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이전에 주조한 활자가 크고 고르지 않았다. 이에 왕께서 경자년에 다시 주조하셨다. 그리하여 그 모양이 작고 바르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인쇄하지 않은 책이 없었다. 이를 경자자라고 하였다. 갑인년에 다시 『위선음즐(爲善陰騭)』의 글자 모양을 본떠 갑인자를 주조하니, 경자자에 비하여 조금 크고 활자 모양이 매우 좋았다.

①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②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를 간행하였다.
③ 삼남 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
④ 전세를 1결당 4~6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제정하였다.
⑤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20.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정문형, 한치례 등이 아뢰기를, "지금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보니, 입으로만 읽지 못할 뿐 아니라 차마 눈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 마땅히 대역의 죄로 논단하고 부관참시해서 그 죄를 분명히 밝혀 신하와 백성의 분을 씻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 왕이 정문형 등의 의견을 따랐다.

(나)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조광조, 김정 등은 서로 사귀어 무리를 이루고 자기 편은 천거하고 자기 편이 아닌 자는 배척하면서, 위세를 높여 서로 의지하며 권세가 있는 요직을 차지하였다. …… 이 모든 일들을 조사하여 밝혀라."라고 하였다.

①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②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윤임이 제거되었다.
③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④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하였다.
⑤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을 빌미로 김굉필 등이 처형되었다.

21.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4월 누르하치의 군대가 무순을 함락하고, 7월에는 청하를 함락하였다. 이에 명에서 정벌을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군사 징발을 요구하였다. 명의 총독 왕가수의 군문(軍門)에서 약 4만의 병사를 요구하였으나, 경략(經略) 양호가 조선의 병사와 군마가 적다고 하여 마침내 그 수를 줄여서 총수(銃手) 1만 명만 징발하였다. 7월 조정에서 강홍립을 도원수로, 김경서를 부원수로 삼았다.

– 『책중일록』 –

1453	1510	1597	1627	1728	1811
(가)	(나)	(다)	(라)	(마)	
계유정난	삼포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이인좌의 난	홍경래의 난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제6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22.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①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② 이괄이 이끈 반란군이 도성을 장악하였다.
③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항전하였다.
④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적군을 크게 물리쳤다.
⑤ 이종무가 적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23.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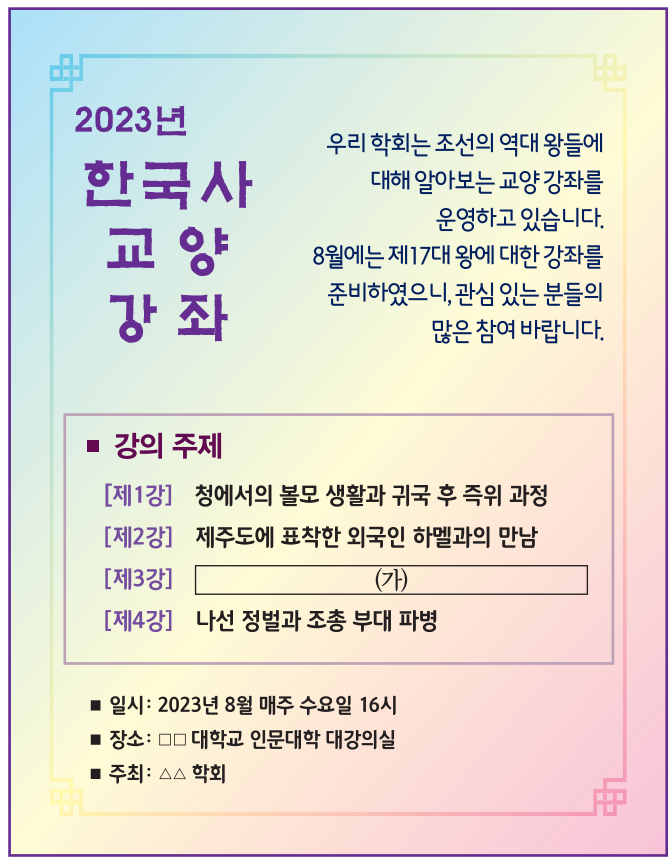
① 학문 연구 기관으로 집현전을 두었다.
②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③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④ 궁중 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을 편찬하였다.
⑤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을 단행하였다.

24.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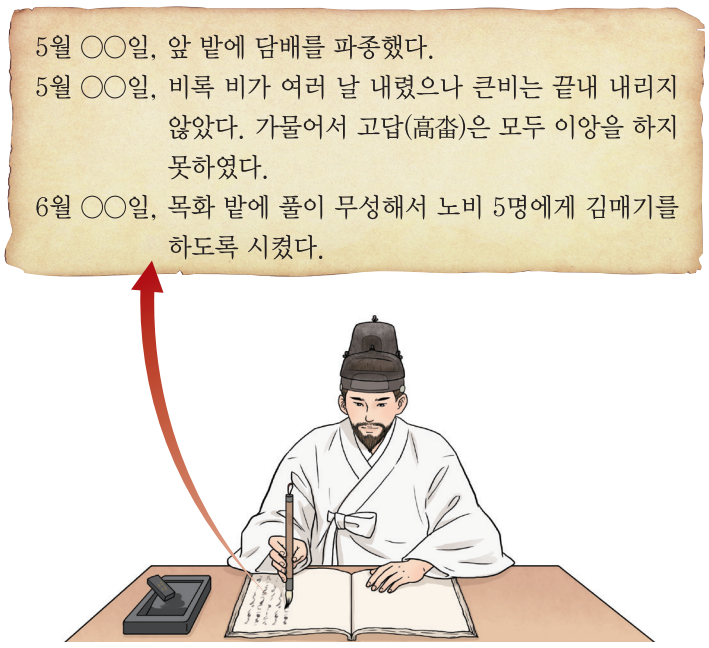
① 지봉유설에서 천주실의를 소개하였다.
② 의산문답에서 무한 우주론을 주장하였다.
③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하였다.
④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 수용을 강조하였다.
⑤ 동의수세보원을 편찬하여 사상 의학을 정립하였다.

25.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어영청의 개편과 북벌 추진
② 위화도 회군과 과전법의 시행
③ 문신 재교육을 위한 초계문신제의 운영
④ 백두산정계비 건립과 청과의 국경 획정
⑤ 기유약조 체결을 통한 일본과의 무역 재개

26. 다음 일기가 작성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점]



① 상평통보가 화폐로 사용되었다.
②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③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하였다.
④ 보부상이 장시를 돌아다니며 상품을 판매하였다.
⑤ 국경 지대에서 개시 무역과 후시 무역이 이루어졌다.

27. (가)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복원 기공식 대통령 연설문**

임진왜란 때 (가) 은/는 불길 속에 휩싸여 흥선대원군이 그 당시의 국력을 기울여 중건할 때까지 270년의 오랜 세월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제는 1910년 우리나라를 병탄한 뒤 우리 역사의 맥을 끊기 위해 350여 채에 이르던 전각 대부분을 헐어내고 옮겼습니다. 국권의 상징이던 근정전을 가로막아 총독부 건물을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궁을 복원하려는 것은 남에 의해 훼손된 민족사에 대한 긍지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① 일제에 의해 동물원 등이 설치되었다.
②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③ 도성 내 서쪽에 있어 서궐이라고 불렸다.
④ 조선 물산 공진회 개최 장소로 이용되었다.
⑤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며 건립하였다.

28. 다음 장면에 나타난 사건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② 이원익이 대동법 시행을 건의하였다.
③ 정약종 등이 희생된 신유박해가 일어났다.
④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군이 강화도에 침입하였다.
⑤ 황사영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였다.

29. 다음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홍영식이 우정국에서 개업식을 명목으로 연회를 열어 세인들이 독립당이라고 칭하는 사람들과 각국 사관(使官) 등을 초대하였다. 연회가 끝날 무렵에 우정국 옆에서 불이 일어났다. …… 마침내 어젯밤의 사변에 따라 독립당이 정권을 획득하였다. 조보(朝報)에서는 새롭게 관리를 임명하겠다는 취지를 포고하였다. 박영효, 김옥균, 서광범은 승지가 되었고, 김옥균은 혜상공국 당상을 겸하였다.
>
> –「조난기사」–

① 한성 조약이 체결되었다.
②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③ 김윤식이 청에 영선사로 파견되었다.
④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⑤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다.

제6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30~31]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대 여러 나라들도 역시 각각 사관(史官)을 두어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맹자께서 이르시기를, "진(晉)의 승(乘)과 초(楚)의 도올(檮杌)과 노(魯)의 춘추(春秋)는 모두 한가지다."라고 하셨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해동(海東) 삼국도 역사가 길고 오래되어 마땅히 그 사실이 책으로 기록되어야 하므로 폐하께서 이 늙은 신하에게 명하시어 편집하도록 하셨습니다. …… 신의 학술이 이처럼 부족하고 얕으며, 옛말과 지나간 일은 그처럼 아득하고 희미합니다. 그러므로 온 정신과 힘을 다 쏟아 부어 겨우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잘것 없기에 스스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나) 고려가 끝내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아 토문강 북쪽과 압록강 서쪽이 누구의 땅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여진을 책망하려 하여도 할 말이 없고, 거란을 책망하려 하여도 할 말이 없다. 고려가 약한 나라가 된 것은 발해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탄식할 수밖에 없다. …… 내가 내규장각 관리로 있으면서 비밀스런 책[秘書]을 꽤 많이 읽었으므로 발해에 관한 일을 차례로 편찬하여, 군고(君考)·신고(臣考)·지리고(地理考)·직관고(職官考)·의장고(儀章考)·물산고(物産考)·국어고(國語考)·국서고(國書考)·속국고(屬國考) 등 9편으로 구성된 ㉡책을 만들었다.

(다)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정신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가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 역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인 것이다. 무엇을 '아'라 하며 무엇을 '비아'라 하는가? …… 무릇 주체적 위치에 선 자를 '아'라 하고, 그 외에는 '비아'라 하는데, 이를테면 조선 사람은 조선을 '아'라 하고, 영국·미국·프랑스·러시아 등을 '비아'라 하지만, 그들은 각기 제 나라를 '아'라 하고 조선은 '비아'라 하며, ……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

30. (가)~(다)를 작성한 인물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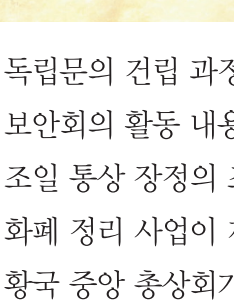
① (가) –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유하였으며, 성리학의 보급에 기여하였다.
② (가) – 칠대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문헌공도를 만들어 사학을 진흥시켰다.
③ (나) – 금석학을 연구하여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④ (다) – 한국통사를 저술하였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제2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⑤ (다) – 대한매일신보의 주필로 활동하였으며, 폭력을 통한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였다.

31. 밑줄 그은 ㉠, ㉡에 해당하는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 –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를 수록하였다.
② ㉠ – 본기, 연표, 잡지, 열전 등으로 구성된 기전체 사서이다.
③ ㉡ – 사초와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하였다.
④ ㉡ –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하였다.
⑤ ㉠, ㉡ –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 조선으로 삼았다.

32.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역사 돋보기 **(가)의 교세를 확장한 해월 최시형**



해월 선생은 제자들에게 '최보따리'라고도 불렸다. 포교를 위해 잠행을 하면서 보따리를 자주 쌌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교조 최제우의 처형으로 위축되었던 (가)의 교세는 2대 교주였던 그의 노력으로 크게 확장되었다. 그는 1897년 손병희에게 도통을 전수하였고 1898년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사 중에는 고부 학정의 원흉 조병갑이 있었다.

① 동경대전을 경전으로 삼았다.
② 항일 무장 단체인 중광단을 결성하였다.
③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펼쳤다.
④ 배재 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앞장섰다.
⑤ 프랑스와의 조약을 통해 포교가 허용되었다.

33.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각국 공관에 보내는 호소문

지금 일본 공사가 우리 외부(外部)에 공문을 보내어 산림, 천택(川澤), 들판, 황무지에 대한 권리를 청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를 이용해 2~3년 걸러 윤작을 해야만 먹고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를 외국인에게 주어버린다면 전국의 강토를 모두 빼앗기게 되며 수많은 사람이 참혹한 빈곤에 빠져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침략을 막고 우리 강토를 보전하도록 힘써 주십시오.

1904년 ○○월 ○○일

① 독립문의 건립 과정을 알아본다.
② 보안회의 활동 내용을 파악한다.
③ 조일 통상 장정의 조항을 검토한다.
④ 화폐 정리 사업이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⑤ 황국 중앙 총상회가 조직된 목적을 분석한다.

34. 다음 상황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근일에 의병을 일으킨 이들이 각처에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정부에 변란이 자주 나고 각처에 도적이 일어나며 대군주 폐하께서 외국 공사관에 파천하여 환궁하실 기약이 없고 일본 사람들이 조선 인민을 어지럽게 하는 고로, 의병을 일으켜 서울에 올라와 궁궐을 지키고 대군주 폐하를 환궁하시게 한다."라고 하였다.

①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②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③ 용암포 사건이 발생하였다.
④ 헤이그에 특사가 파견되었다.
⑤ 대한 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35. 다음 관제가 반포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원수부 관제〉**
>
> 대황제 폐하는 대원수로서 군기(軍機)를 총람하고 육해군을 통령하며, 황태자 전하는 원수로서 육해군을 일률적으로 통솔한다. 이에 원수부를 설치한다.
>
> **제1조**
>
> 원수부는 국방과 용병(用兵)과 군사에 관한 각 항의 명령을 관장하며 특별히 세운 권한을 가지고 군부와 경외(京外)의 각 부대를 지휘 감독한다.

① 지계아문이 설치되었다.
② 군국기무처가 창설되었다.
③ 5군영이 2영으로 통합되었다.
④ 한성 사범 학교가 설립되었다.
⑤ 건양이라는 연호가 제정되었다.

36.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남대관, 권수정 등은 전 한족총연합회 간부였던 지청천, 신숙 등과 함께 아성현(阿城縣)에서 한국대독립당을 조직하고 지청천을 총사령, 남대관을 부사령으로 하는 [(가)]을/를 편성하였다. …… [(가)]은/는 딩차오(丁超)의 군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고 대원을 모집하여 일본 측 기관의 파괴, 일본 요인의 암살 등을 기도하였다.

①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②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③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④ 중국 관내(關內)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⑤ 대한 국민회군 등과 연합하여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37. 밑줄 그은 '법령'이 시행된 시기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1점]

> **□□신문**
> 제△△호 ○○○○년 ○○월 ○○일
>
> **어려움에 빠진 한인 회사**
>
>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령이 제정되었다. 이후 한인의 회사는 큰 영향을 받아 손해가 적지 않기에 실업계의 원성이 자자하다. 전국에 있는 회사를 헤아려보니 한국에 본점을 두고 설립한 회사가 171개인데 자본 총액이 5,021만여 원이요, 외국에 본점을 두고 지점을 한국에 설립한 회사가 52개인데 자본 총액이 1억 1,230만여 원이다. 그중에 일본인의 회사가 3분의 2 이상이고, 몇 개 되지 않는 한인의 회사는 상업 경쟁에 밀리고 회사 세납에 몰려 도무지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① 신문지법을 제정하였다.
② 미쓰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③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④ 경성 제국 대학을 설립하였다.
⑤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시행하였다.

38.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판결문**
>
> **피 고 인:** 박상진, 김한종
>
> **주 문:** 피고 박상진, 김한종을 사형에 처한다.
>
> **이 유**
>
> 피고 박상진, 김한종은 한일 병합에 불평을 가지고 구한국의 국권 회복을 명분으로 [(가)]을/를 조직하고 국권 회복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조선 각도의 자산가에게 공갈로 돈을 받아내기로 하고 …… 채기중 등을 교사하여 장승원의 집에 침입하여 자금을 강취하고 살해하도록 한 죄가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판결한다.

① 중일 전쟁 발발 직후에 결성되었다.
②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 결사였다.
③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였다.
④ 일제가 꾸며낸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⑤ 만민 공동회를 열어 열강의 이권 침탈을 비판하였다.

제6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39. 밑줄 그은 '시위 운동'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수신: 육군 대신
발신: 조선 헌병대 사령관

오늘 1일 새벽 경성에서 조선 독립에 관한 선언서를 발견함. 위 선언서에는 천도교, 기독교 신도들의 서명이 있었는데, 이면에는 일본 및 조선의 학생들과 비밀리에 연락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 중. 오후 2시에 이르러 중학(中學) 정도의 학생 약 1,000명이 모이자, 민중이 이에 어울려 시내를 행진하고 시위 운동을 시작함. 지금 수배 중. 위 집단은 각 장소에서 한국 독립 만세를 외치나 난폭한 행동으로 나오지는 않아 매우 불온한 형세는 없음. 주모자를 체포하고 해산시킬 예정이고 선언서에 서명한 사람 대부분은 즉시 체포함.

① 간도 참변으로 민간인이 학살되었다.
② 상하이에서 국민 대표 회의가 개최되었다.
③ 언론사의 주도로 브나로드 운동이 전개되었다.
④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이 결성되었다.
⑤ 도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 독립 선언서가 발표되었다.

40.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문학으로 보는 한국사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靑袍)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해설]

이 시는 독립 운동가이자 문학가인 (가) 의 '청포도'이다. 그는 이 시를 비롯한 다양한 작품에서 식민지 현실에 맞서 꺾이지 않는 민족의식을 표현하였다.

그의 본명은 이원록으로 안동에서 태어났고, 1927년 장진홍의 조선은행 대구 지점 폭탄 의거에 연루되어 투옥되었다. 이후에도 그는 중국을 오가며 독립운동에 힘쓰다가 1943년 체포되어 이듬해 베이징의 일본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① 소설 상록수를 신문에 연재하였다.
② 광야, 절정 등의 저항시를 발표하였다.
③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 대장을 저격하였다.
④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 강령을 만들었다.
⑤ 여유당전서를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41.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신문

제△△호 1924년 ○○월 ○○일

이중교 폭탄 사건 주역은 (가) 의 김지섭

9월 1일 대지진 때 일어난 조선인 학살이 도화선

금년 1월 5일 오후 7시에 동경 궁성 이중교 앞에서 일어난 폭탄 투척 사건은 전일본을 경악하게 만든 대사건이었다.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신문 게재 일체를 금지하였고, 동경 지방 재판소의 검사와 예심 판사가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번에 예심이 결정되고 당국의 보도 금지가 해제되었기에, 피고 김지섭 외 4명은 전부 유죄로 공판에 회부되었음을 보도한다. 김지섭은 조선 독립을 위해 (가) 의 단장 김원봉과 함께 과격한 방법을 강구하였고, 이를 일본에서 실행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① 김구가 상하이에서 조직하였다.
② 비밀 행정 조직인 연통제를 운영하였다.
③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④ 신흥 무관 학교를 세워 무장 투쟁을 준비하였다.
⑤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 하였다.

42.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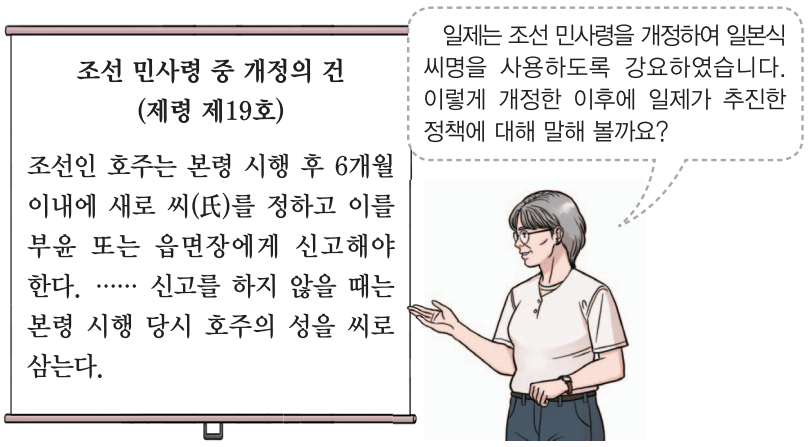
2천만 피압박 민중 제군이여!

우리 2천만 생령(生靈)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광주 학생 남녀 수십 명이 빈사(瀕死)의 중상을 입었다. 고뇌하는 청년 학생 2백 명이 불법으로 철창 속에 갇혀 있다. 그들은 정의를 위하여 거리로 나가 시위를 했다. 그러나 지배 계급의 미친개의 이빨에 물리고 말았다. 우리들은 광주 학생의 석방을 요구하는 동시에 참을 수 없는 피눈물로 시위 대열에 나가는 것이다.

- 감금된 학생을 탈환하자
- 총독 폭압 정치 절대 반대
- 교육에 경찰 간섭 반대
- 치안 유지법을 철폐하라

① 순종의 장례일을 맞아 가두시위를 벌였다.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③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④ 신간회의 지원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⑤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 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43.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통감부를 설치하였습니다.
② 조선 태형령을 시행하였습니다.
③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였습니다.
④ 여자 정신 근로령을 공포하였습니다.
⑤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44.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항복 전에 정무총감 엔도 등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일본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가)와/과 논의하였다. …… 일본인들은 그가 유혈 사태를 막아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 그런데 (가)은/는 조선 총독부가 생각했던 바를 따르지 않았다. 일본이 원했던 것은 연합군이 올 때까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평화 유지 위원회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실질적인 정부로 여겨질 수 있는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만들었다.

①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결성하였다.
②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옥고를 치렀다.
③ 김규식과 함께 좌우 합작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④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⑤ 미국에서 귀국하여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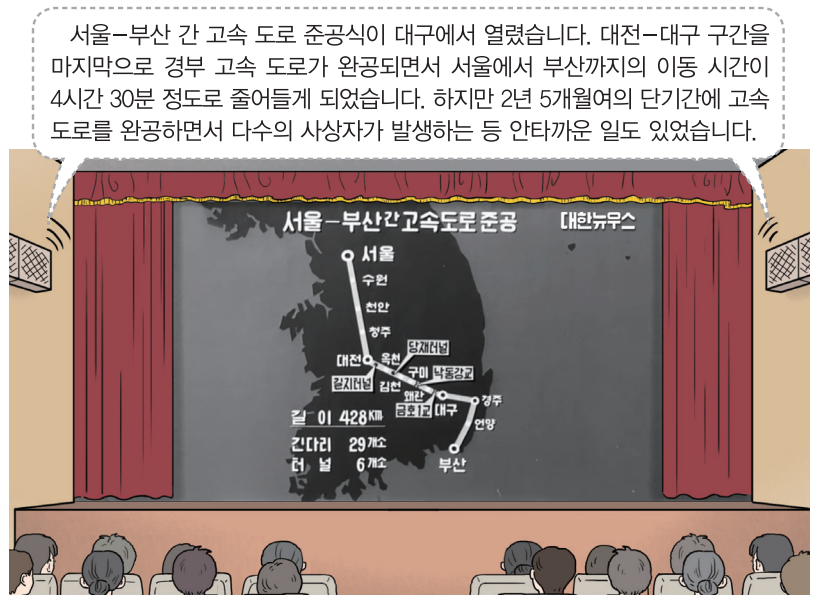
45.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 기〉
ㄱ. 애치슨 라인이 발표되었다.
ㄴ. 인천 상륙 작전이 전개되었다.
ㄷ. 부산에서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ㄹ.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6.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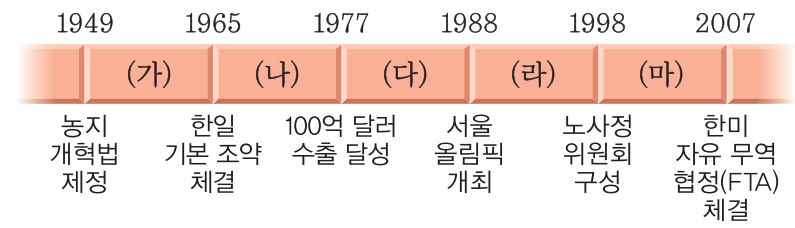


①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② 미국의 경제 원조로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③ 귀속 재산 처리를 위해 신한 공사가 설립되었다.
④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⑤ 최저 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 임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제6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7. 다음 발표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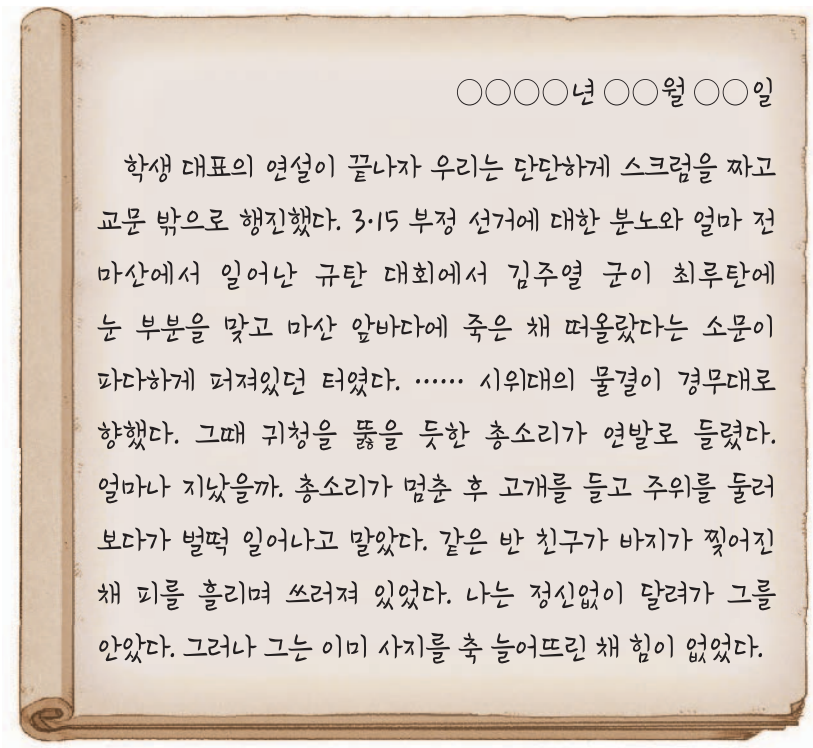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48.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율곡 이이가 태어난 오죽헌을 추천해요.
② 무령왕릉이 있는 송산리 고분군을 추천해요.
③ 어재연 부대가 항전했던 광성보에 가 보세요.
④ 팔만대장경판이 보관된 해인사를 방문해 보세요.
⑤ 삼별초가 활동한 항파두리 항몽 유적에 가 보세요.

49. 다음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년 ○○월 ○○일

학생 대표의 연설이 끝나자 우리는 단단하게 스크럼을 짜고 교문 밖으로 행진했다. 3·15 부정 선거에 대한 분노와 얼마 전 마산에서 일어난 규탄 대회에서 김주열 군이 최루탄에 눈 부분을 맞고 마산 앞바다에 죽은 채 떠올랐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있던 터였다. …… 시위대의 물결이 경무대로 향했다. 그때 귀청을 뚫을 듯한 총소리가 연발로 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총소리가 멈춘 후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벌떡 일어나고 말았다. 같은 반 친구가 바지가 찢어진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나는 정신없이 달려가 그를 안았다. 그러나 그는 이미 사지를 축 늘어뜨린 채 힘이 없었다.

① 시민군이 조직되어 계엄군에 저항하였다.
② 당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③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④ 3선 개헌 반대 범국민 투쟁 위원회가 주도하였다.
⑤ 장기 독재를 비판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50.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남북 간의 제반 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나라의 통일 문제를 다루는 남북 조절 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남북 조절 위원회는 판문점에 공동 사무국을 두기로 하였으며, 회의는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특히 이번 합의서에서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양측의 국호를 사용하였다.

①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되었다.
②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③ 평창 동계 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이 참가하였다.
④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개성 공업 지구가 조성되었다.
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이 최초로 성사되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66회 심화 정답과 해설

정답표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③	④	①	⑤	⑤	⑤	③	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③	②	④	③	①	②	③	⑤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③	④	③	②	①	②	④	④	①	⑤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②	①	②	①	①	③	③	②	⑤	②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③	④	④	③	③	①	④	①	②	⑤

1 선사 · 구석기 시대 정답 ②

① X 해설 반달 돌칼은 청동기 시대에 벼 이삭을 따던 돌 도구다. 자료에서 공주 석장리 유적과 주먹도끼, 뗀석기 만들기 체험이 나오니 (가)는 구석기 시대다. 구석기 시대에는 아직 농사를 짓지 않았다.

② O 해설 자료의 주먹도끼는 돌을 깨뜨리고 떼어 내어 만든 뗀석기로,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도구다. 구석기 사람들은 먹을거리를 찾아 옮겨 다녔기 때문에 동굴이나 바위 그늘, 강가에 간단히 지은 막집에서 살았다.

③ X 해설 반량전과 명도전은 중국에서 만든 돈으로, 철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 돈이 나온 것은 그 무렵 중국과 물건을 주고받았다는 뜻이다. 구석기 시대와는 거리가 멀다.

④ X 해설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신석기 사람들은 토기에 곡식을 담아 저장하였다. 구석기 시대에는 아직 토기를 만들지 못했다.

⑤ X 해설 가락바퀴는 실을 뽑는 도구이고, 뼈바늘은 옷을 꿰매는 바늘이다. 둘 다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나와, 이때부터 옷감을 짜서 옷을 지어 입었음을 알려 준다. 구석기 시대의 모습이 아니다.

2 선사 · 옥저와 동예 정답 ②

① X 해설 소도는 삼한에서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던 신성한 곳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 숨어들어도 잡아갈 수 없었다. 자료의 나라는 옥저이므로 맞지 않다.

② O 해설 자료에서 큰 임금이 없고 마을마다 우두머리(삼로)가 있으며, 죽은 사람의 뼈만 추려 온 가족을 큰 나무 곽에 함께 넣었다고 했으니 옥저다. 옥저에는 어린 여자아이를 신랑 집에서 키우다가 어른이 되면 혼인시키는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③ X 해설 범금 8조(8조법)로 질서를 지킨 나라는 고조선이다. 사람을 죽이면 사형,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갚게 한 조항이 전해진다. 옥저의 일이 아니다.

④ X 해설 마가·우가·저가·구가 같은 여러 가(加)가 사출도를 나누어 다스린 나라는 부여다. 옥저는 왕이 없이 읍군·삼로 같은 우두머리가 마을을 다스렸다.

⑤ X 해설 정사암은 백제 귀족들이 모여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재상을 뽑던 바위다. 옥저와는 관계가 없다.

3 고대 · 삼국의 고분 정답 ③

① X 해설 사진은 고려의 청동 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병이다. 청동 병에 은실을 박아 버드나무와 물새를 새겼고, 부처님 앞에 맑은 물을 올리는 데 썼다. 신라가 아니라 고려의 문화유산이다.

② X 해설 사진은 금동 연가7년명 여래 입상이다. 등 뒤의 광배에 고구려의 연호인 「연가 7년」이 새겨져 있어 고구려 불상으로 본다. 신라의 문화유산이 아니다.

③ O 해설 자료의 천마총은 경주에 있는 신라의 돌무지덧널무덤으로, 천마도가 그려진 말다래가 나왔으니 (가)는 신라다. 사진은 나뭇가지와 사슴뿔 모양 장식이 달린 신라의 금관으로, 천마총에서도 이런 금관이 나왔다.

④ X 해설 사진은 두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는 이불병좌상이다. 고구려 불교의 영향을 받은 발해의 대표적인 불상이다. 신라의 문화유산이 아니다.

⑤ X 해설 사진은 백제 금동 대향로다.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나왔고, 꼭대기에 봉황, 아래에 용을 새겨 백제 사람들의 뛰어난 솜씨를 보여 준다. 신라가 아니라 백제의 문화유산이다.

4 고대 ·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정답 ④

① X 해설 대가야를 병합한 왕은 신라 진흥왕이다(562). 자료의 왕은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고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왜를 물리쳤으니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다. 광개토 대왕의 일이 아니다.

② X 해설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 왕은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이다(427). 장수왕은 남쪽으로 나라를 넓히려고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③ X 해설 지방 22담로에 왕족을 보내 다스리게 한 왕은 백제 무령왕이다.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일이 아니다.

④ O 해설 자료에서 기해년(399)에 백제가 왜와 손잡자 왕이 평양으로 내려가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았고, 경자년(400)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에 쳐들어온 왜를 물리쳤다고 했으니 광개토 대왕이다. 광개토 대왕은 「영락」이라는 연호를 써서 고구려가 중국과 대등한 나라임을 내세웠다.

⑤ X 해설 낙랑군을 몰아내고 땅을 넓힌 왕은 고구려 미천왕이다(313). 광개토 대왕보다 앞선 왕이다.

5 고대 · 백제의 위기와 중흥 정답 ①

① O 해설 자료에서 신라 선화 공주를 왕후로 맞아 익산 미륵사를 세웠고 아들이 의자왕이라 했으니 (가)는 백제 무왕(재위 600~641)이다. 고구려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대군을 크게 무찌른 것은 612년으로, 무왕이 다스리던 때의 일이 맞다.

② X 해설 박사 고흥이 역사책 『서기』를 쓴 것은 4세기 백제 근초고왕 때다. 무왕보다 200년 넘게 앞선다.

③ X 해설 계백이 황산벌에서 결사대 5천을 이끌고 신라군과 싸운 것은 660년, 무왕의 아들 의자왕 때다. 이 싸움 뒤에 백제가 멸망하였다.

④ X 해설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을 정복한 것은 512년 신라 지증왕 때다. 무왕이 즉위하기 약 90년 전이다.

⑤ X 해설 사찬 시득이 기벌포에서 당의 수군을 물리친 것은 676년 신라 문무왕 때다. 이미 백제가 멸망한 뒤의 일이다.

6 고대 · 통일 신라의 경제 정답 ⑤

① X 해설 삼한통보와 해동통보는 고려 숙종 때 만든 동전이다. 자료는 청해진을 세워 바다 무역을 펼친 통일 신라의 이야기이므로 맞지 않다.

② X 해설 솔빈부의 말은 발해의 이름난 특산물이다. 통일 신라의 경제 모습이 아니다.

③ X 해설 고구마와 감자는 조선 후기에 들어와 흉년에 굶주림을 막는 구황 작물로 재배되었다. 통일 신라 때의 일이 아니다.

④ X 해설 소(所)는 고려 시대에 금·은·종이·먹·자기 같은 물품을 만들어 나라에 바치던 특수 행정 구역이다. 통일 신라가 아니라 고려의 모습이다.

⑤ O 해설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세워 바다 무역을 이끈 나라는 통일 신라다. 통일 신라는 세금을 거두려고 마을의 인구·소·말·뽕나무 수 등을 조사해 3년마다 촌락 문서(민정 문서)를 만들었다.

7 고대 · 신라 하대의 혼란과 호족 정답 ⑤

① X 해설 『계백료서』는 고려 태조 왕건이 신하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적어 내린 책이다. (가) 원성왕 즉위(785)와 (나) 원종·애노의 난(889) 사이인 신라 하대의 모습이 아니다.

② X 해설 녹읍을 없앤 왕은 통일 신라 신문왕이다(689). 귀족의 힘을 줄이려는 개혁으로, (가)의 원성왕 즉위보다 약 100년 앞선다.

7 해설 계속 정답 ⑤

③ X 해설 성균관은 고려 후기에 국자감의 이름을 바꾸어 부른 최고 교육 기관이고, 조선에서도 이어졌다. 신라 하대의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④ X 해설 초조대장경은 고려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막으려고 새기기 시작한 대장경이다. 신라 하대의 일이 아니다.

⑤ O 해설 (가)는 선덕왕이 죽은 뒤 김주원 대신 김경신(원성왕)이 왕위에 오른 785년, (나)는 진성 여왕 때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일으킨 889년의 난이다. 그 사이인 822년 웅천주 도독 김헌창이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가 진압되었다.

8 고대 · 발해의 문화 정답 ⑤

① X 해설 자료의 크라스키노 성과 콕샤로프카 평지성은 지금의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발해 유적이다. 백제 문화가 아니므로 백제 문화의 국제성을 탐구하는 주제와 맞지 않다.

② X 해설 신라와 서역의 교류는 서역 사람의 얼굴을 한 경주 괘릉(원성왕릉)의 무인 석상 같은 유물로 살펴본다. 자료의 유물은 발해 유적에서 나온 것이므로 맞지 않다.

③ X 해설 가야는 토기 만드는 기술 등을 일본에 전해 주었다. 자료의 유물은 가야가 아니라 발해의 것이다.

④ X 해설 몽골풍은 원 간섭기 고려에서 변발, 몽골식 옷, 족두리 같은 몽골 풍습이 퍼진 것을 말한다. 자료의 발해 유물과는 관계가 없다.

⑤ O 해설 크라스키노 성에서 나온 연꽃무늬 수막새와 콕샤로프카 평지성의 온돌은 고구려에서 이어받은 문화다. 연꽃무늬 기와와 방바닥을 데우는 온돌을 통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알 수 있다.

9 고대 · 후삼국의 성립 정답 ③

① X 해설 독서삼품과는 신라 원성왕이 788년에 유교 경전을 얼마나 읽었는지에 따라 관리를 뽑으려고 만든 제도다. 견훤의 일이 아니다.

② X 해설 동진에서 온 승려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인 것은 384년 백제 침류왕 때다. 견훤과는 관계가 없다.

③ O 해설 자료에서 완산주(지금의 전주)를 도읍으로 나라를 세우고, 아들 신검에게 금산사에 갇혔다가 빠져나온 인물이라 했으니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다. 견훤은 중국의 후당과 오월에 사신을 보내 외교를 펼쳤다.

9 해설 계속 정답 ③

④ X 해설 광평성 같은 정치 기구를 만든 사람은 후고구려(태봉)를 세운 궁예다. 견훤의 일이 아니다.

⑤ X 해설 화랑도를 나라의 조직으로 키운 왕은 신라 진흥왕이다. 견훤보다 300년 넘게 앞선다.

10 고려 · 고려의 산업과 화폐 정답 ⑤

① O 해설 자료의 공음전시법은 고려 문종 3년(1049)에 정한 제도다. 고려 숙종 때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 만든 은병이 쓰였고, 입구가 넓어 「활구」라고도 불렀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② O 해설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는 고려의 국제 무역항이다. 송나라뿐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까지 드나들었으므로 고려의 모습이 맞다.

③ O 해설 고려는 개경에 서적점, 다점(찻집) 같은 나라가 운영하는 상점을 두었다. 고려의 경제 모습이 맞다.

④ O 해설 경시서는 개경의 시전에서 물가를 살피고 상인을 감독하던 고려의 관청이다. 고려의 모습이 맞다.

⑤ X 해설 설점수세제는 조선 효종 때(1651) 나라가 광산에 제련장을 차려 주고 민간에게 캐게 한 뒤 세금을 거둔 제도다. 고려가 아니라 조선 후기의 일이므로 옳지 않다.

11 고려 · 거란의 침입과 항쟁 정답 ②

① X 해설 (가) 광군 창설은 947년, (나) 강감찬의 귀주 대첩은 1019년, (다) 서희의 외교 담판은 993년이다. (나)가 (다)보다 늦으므로 이 순서는 틀렸다.

② O 해설 고려 정종 때인 947년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 광군 30만을 만들었다. 993년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가 소손녕과 담판하여 강동 6주를 얻었고, 1019년 3차 침입 때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이겼다. 그래서 (가) - (다) - (나) 순서다.

③ X 해설 (나) 귀주 대첩(1019)은 셋 가운데 가장 늦은 일이다. 맨 앞에 두면 틀린다.

④ X 해설 (나) 귀주 대첩(1019)은 가장 늦은 일이고, (가) 광군 창설(947)이 가장 이르다. 이 순서는 거꾸로다.

⑤ X 해설 (다) 서희의 담판(993)은 (가) 광군 창설(947)보다 늦다. 맨 앞에 올 수 없다.

12 고려 · 고려의 중앙 정치 제도 정답 ④

① X 해설 무신 집권기에 최고 권력 기구 노릇을 한 곳은 최충헌이 만든 교정도감이다. 자료의 (가)는 관리의 잘못을 살피고 탄핵하는 어사대이므로 맞지 않다.

12 해설 계속 정답 ④

② X 해설 원 간섭기에 첨의부로 이름이 낮추어진 기구는 중서문하성이다. 이때 어사대는 감찰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③ X 해설 고려 말에 도평의사사로 바뀐 기구는 나라의 국방 문제를 의논하던 도병마사다. 어사대가 아니다.

④ O 해설 자료에서 정치의 잘잘못을 가리고 관리의 부정을 감찰·탄핵하는 고려의 관청이라 했으니 (가)는 어사대다. 어사대의 관리는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이라 불렸고, 관리를 임명할 때 동의하는 서명을 하는 서경권을 가졌다.

⑤ X 해설 서얼 출신 학자들이 검서관으로 뽑힌 곳은 조선 정조 때의 규장각이다.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같은 학자가 검서관이 되었다.

13 고려 · 몽골의 침입과 항쟁 정답 ③

① X 해설 ㄴ은 맞지만 ㄱ이 틀렸다. 양규가 무로대에서 적을 물리친 것은 1010년 거란의 2차 침입 때다. 자료의 (가)는 고려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게 한 몽골이다.

② X 해설 ㄷ은 맞지만 ㄱ이 틀렸다. 양규의 무로대 싸움은 거란의 침입 때 일이다. 몽골의 침입과는 관계가 없다.

③ O 해설 자료에서 (가)의 침략에 맞서 고려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고 했으니 몽골이다. ㄴ 김윤후는 1253년 충주성에서 노비 문서를 불태우며 백성을 이끌어 몽골군을 막았고, ㄷ 송문주는 1236년 죽주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다.

④ X 해설 ㄴ은 맞지만 ㄹ이 틀렸다.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 9성을 쌓은 것은 1107년 여진을 정벌한 일이다.

⑤ X 해설 ㄷ은 맞지만 ㄹ이 틀렸다. 별무반과 동북 9성은 여진에 맞선 일로, 몽골의 침입보다 100년 넘게 앞선다.

14 고려 · 무신 정변 정답 ②

① X 해설 묘청 등이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자고 주장하다 난을 일으킨 것은 1135년이다. 자료의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인 1179년보다 앞선다.

② O 해설 자료는 1179년 경대승이 정중부를 없애고 권력을 잡은 뒤, 이의민이 두려워하는 장면이다. 그 뒤 1196년 최충헌이 이의민을 죽이고 정권을 잡아 명종에게 개혁안인 봉사 10조를 올렸으므로 이후의 사실이 맞다.

③ X 해설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몰아낸 것은 1009년이다. 이 일은 거란이 2차로 쳐들어온 구실이 되었으며, 자료보다 170년쯤 앞선다.

14 해설 계속 정답 ②

④ X 해설 이자겸과 척준경이 난을 일으켜 궁궐을 불태운 것은 1126년 인종 때다. 무신 정변(1170)보다도 앞선 일이다.

⑤ X 해설 김보당이 쫓겨난 의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자며 군사를 일으킨 것은 1173년이다.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인 1179년보다 앞선다.

15 고려 · 공민왕의 개혁 정답 ④

① X 해설 초량 왜관은 조선 숙종 때(1678) 부산에 새로 지은 왜관으로, 조선 후기 일본과 교역하던 곳이다. 자료의 왕은 고려 공민왕이므로 그때의 모습이 아니다.

② X 해설 『동의보감』은 허준이 광해군 때 완성한 조선의 의학책이다. 고려 공민왕 때는 아직 없던 책이다.

③ X 해설 주자감은 발해의 최고 교육 기관이다. 고려 공민왕 때의 모습이 아니다.

④ O 해설 자료에서 이자춘이 왕의 명령에 따라 유인우와 함께 쌍성총관부를 무너뜨렸다고 했으니 1356년의 일로, 왕은 고려 공민왕이다. 공민왕은 신돈을 내세워 전민변정도감을 두고, 권세가가 빼앗은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 주었다.

⑤ X 해설 황룡사 구층 목탑은 신라 선덕 여왕 때(645) 세운 탑이다. 고려 공민왕보다 700년쯤 앞선 일이다.

16 고려 · 지눌과 결사 운동 정답 ③

① X 해설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한 승려는 신라의 의상이다. 자료의 (가)는 지눌의 제자 혜심이므로 맞지 않다.

② X 해설 해동 천태종을 열어 교종과 선종을 하나로 묶으려 한 승려는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이다. 혜심의 일이 아니다.

③ O 해설 자료에서 지눌의 제자로 수선사의 2대 우두머리가 되었고, 집권자 최우가 두 아들을 출가시켰다고 했으니 진각국사 혜심이다. 혜심은 『선문염송집』을 펴냈고, 유교와 불교가 근본에서 다르지 않다는 유불 일치설을 내세웠다.

④ X 해설 「권수정혜결사문」을 써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자는 정혜쌍수를 강조한 승려는 혜심의 스승 지눌이다. 혜심 자신의 일이 아니다.

⑤ X 해설 「보현십원가」를 향가로 지어 불교 가르침을 백성에게 쉽게 전한 승려는 고려 초의 균여다. 혜심의 일이 아니다.

17 고려 · 고려의 건축과 석탑 정답 ①

① O 해설 자료에서 강원도 평창에 있는 국보로, 고려 시대 다각 다층 석탑을 대표하고 지붕돌 귀퉁이마다 풍경을 달았다고 했으니 (가)는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이다. 사진이 바로 이 탑으로, 8각형 몸체가 아홉 층으로 올라가고 꼭대기 머리 장식이 온전히 남아 있다.

② X 해설 사진은 첫 층이 크고 그 위가 갑자기 작아지는 통일 신라의 특수한 석탑으로, 경주 정혜사지 십삼층 석탑으로 보인다. 강원도 평창의 고려 탑이 아니다.

③ X 해설 사진은 대리석에 불상과 장식을 빽빽이 새긴 십층 석탑으로, 원의 영향을 받은 고려 후기의 개성 경천사지 십층 석탑으로 보인다.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있고, 평창에 있는 탑이 아니다.

④ X 해설 사진은 벽돌을 쌓아 만든 발해의 영광탑이다. 지금의 중국 지린성에 남아 있는 전탑으로, 고려의 탑이 아니다.

⑤ X 해설 사진은 돌을 벽돌 모양으로 얇게 다듬어 쌓고 층마다 풍경을 단 모전 석탑으로, 강원도 정선의 정암사 수마노탑으로 보인다. 몸체가 네모난 칠층탑이고 평창이 아니라 정선에 있으므로 맞지 않다.

18 조선전기 · 조선의 건국과 태조 정답 ②

① X 해설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린 것은 고려 성종 때(982)다. 자료의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인 1392년보다 400년 넘게 앞선다.

② O 해설 자료는 1392년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인 직후 이성계와 나누는 대화다. 그 뒤 조선이 세워졌고, 1400년 2차 왕자의 난 뒤에 권근 등의 건의로 왕족과 공신이 거느린 사병을 없앴으므로 이후의 사실이 맞다.

③ X 해설 안우, 이방실 등이 홍건적을 물리친 것은 고려 공민왕 때(1361~1362)다. 정몽주가 죽기 전의 일이다.

④ X 해설 망이·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들고일어난 것은 1176년 무신 집권기의 일이다. 자료보다 200년 넘게 앞선다.

⑤ X 해설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처음 실시한 것은 고려 광종 때(958)다. 조선이 세워지기 훨씬 전의 일이다.

19 조선전기 · 세종의 정치 정답 ③

① X 해설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해 반포한 왕은 성종이다(1485). 자료의 왕은 경자자와 갑인자를 만든 세종이므로 맞지 않다.

19 해설 계속 정답 ③

② X 해설 역대 문물 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비고』는 영조 때(1770) 펴냈다. 세종의 업적이 아니다.

③ O 해설 자료에서 경자년(1420)에 경자자를, 갑인년(1434)에 갑인자를 만들었다고 했으니 세종이다. 세종은 정초 등에게 농부들의 경험을 모으게 하여 삼남 지방의 농사법을 소개한 『농사직설』(1429)을 펴냈다.

④ X 해설 전세를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쌀 4~6두로 정한 영정법은 인조 때(1635) 시행되었다. 세종의 업적이 아니다.

⑤ X 해설 삼정이정청은 1862년 임술 농민 봉기 뒤 철종이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으려고 둔 기구다. 세종 때와는 거리가 멀다.

20 조선전기 · 4대 사화 정답 ⑤

① X 해설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난 것은 1589년 선조 때다. (가) 무오사화(1498)와 (나) 기묘사화(1519) 사이가 아니다.

② X 해설 외척끼리 권력을 다투다 윤임 일파가 제거된 것은 1545년 을사사화다. (나) 기묘사화보다 뒤의 일이다.

③ X 해설 효종과 효종비가 죽었을 때 자의 대비가 상복을 얼마 동안 입을지를 두고 다툰 예송은 현종 때(1659, 1674) 일어났다. 두 사화 사이가 아니다.

④ X 해설 희빈 장씨가 낳은 아들을 원자로 정하는 문제로 일어난 기사환국은 1689년 숙종 때다. 두 사화보다 한참 뒤의 일이다.

⑤ O 해설 (가)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문제 삼은 1498년 무오사화, (나)는 조광조와 김정 등을 몰아낸 1519년 기묘사화다. 그 사이인 1504년 연산군이 어머니 폐비 윤씨의 죽음을 빌미로 갑자사화를 일으켜 김굉필 등을 처형하였다.

21 조선전기 ·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 정답 ③

① X 해설 (가)는 계유정난(1453)부터 삼포왜란(1510)까지다. 자료는 누르하치의 후금을 치려고 명이 조선에 군사를 요구한 1618년의 일이므로 이 시기가 아니다.

② X 해설 (나)는 삼포왜란(1510)부터 정유재란(1597)까지다. 임진왜란이 이 시기에 있었지만, 누르하치의 후금이 명을 공격한 것은 그보다 뒤다.

21 해설 계속 정답 ③

③ O 해설 자료는 누르하치의 후금이 무순을 빼앗자 명이 조선에 군사를 요구하여, 조정이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은 1618년 광해군 때의 일이다. 정유재란(1597)과 정묘호란(1627) 사이인 (다)에 들어간다.

④ X 해설 (라)는 정묘호란(1627)부터 이인좌의 난(1728)까지다. 강홍립을 보낸 일은 정묘호란보다 앞선다.

⑤ X 해설 (마)는 이인좌의 난(1728)부터 홍경래의 난(1811)까지로, 영조·정조 시대다. 자료의 일과는 100년 넘게 떨어져 있다.

22 조선전기 · 임진왜란 정답 ④

① X 해설 김상용이 강화도가 함락되자 화약에 불을 붙여 순절한 것은 1637년 병자호란 때다. 자료의 (가)는 임진왜란이므로 맞지 않다.

② X 해설 이괄이 난을 일으켜 한때 도성을 차지한 것은 1624년 인조 때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의 일이다.

③ X 해설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후금군에 맞선 것은 1627년 정묘호란 때다. 임진왜란 중의 일이 아니다.

④ O 해설 자료의 동래부순절도(송상현의 동래성 싸움), 금산 칠백의총(조헌 등 의병), 유성룡의 『징비록』은 모두 임진왜란과 관련된 것이다. 임진왜란 중인 1592년 10월 진주 목사 김시민은 진주성에서 왜군을 크게 물리쳤다.

⑤ X 해설 이종무가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한 것은 1419년 세종 때다. 임진왜란보다 170년쯤 앞선다.

23 조선후기 · 영조의 탕평 정치 정답 ③

① X 해설 학문 연구 기관인 집현전을 둔 왕은 세종이다. 자료의 (가)는 균역법을 만든 탕평 군주 영조이므로 맞지 않다.

② X 해설 포수·사수·살수의 삼수병으로 이루어진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인 1593년 선조 때 만들어졌다. 영조의 일이 아니다.

③ O 해설 자료에서 탕평 군주로, 청계천을 파내는 공사를 지켜보았고 균역법을 만들었다고 했으니 영조다. 영조는 『경국대전』 이후 바뀐 법을 모아 『속대전』(1746)을 펴내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④ X 해설 궁중 음악을 정리한 『악학궤범』은 성종 때(1493) 성현 등이 펴냈다. 영조의 업적이 아니다.

23 해설 계속 정답 ③

⑤ X 해설 육의전을 뺀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없앤 신해통공은 1791년 정조 때 단행되었다. 영조의 손자인 정조의 일이다.

24 조선후기 · 중상주의 실학 정답 ②

① X 해설 『지봉유설』에서 『천주실의』를 소개한 사람은 이수광이다. 자료의 인물은 홍대용이므로 맞지 않다.

② O 해설 자료에서 담헌이라는 호, 농수각을 세워 천문을 관측한 일, 연행사를 따라 청에 다녀와 『을병연행록』을 쓴 일이 나오니 홍대용이다.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지구가 돈다는 지전설과 우주가 끝없이 넓다는 무한 우주론을 펼쳤다.

③ X 해설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꼬집은 사람은 박지원이다. 홍대용과 가까이 지낸 실학자였지만 다른 인물이다.

④ X 해설 『북학의』를 써서 청의 앞선 문물을 배우자고 한 사람은 박제가다. 홍대용의 저술이 아니다.

⑤ X 해설 『동의수세보원』을 펴내 사람의 체질을 넷으로 나누는 사상 의학을 세운 사람은 이제마다(1894). 홍대용과는 관계가 없다.

25 조선후기 · 북벌론과 나선 정벌 정답 ①

① O 해설 자료에서 조선 제17대 왕으로, 청에서 볼모 생활을 하다 돌아와 즉위하고, 제주도에 표착한 하멜을 만나고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를 보냈다고 했으니 효종이다. 효종은 청에 당한 치욕을 갚으려고 어영청을 키우는 등 군대를 정비하며 북벌을 추진하였다.

② X 해설 위화도 회군(1388)과 과전법 시행(1391)은 고려 말 이성계가 권력을 잡아 간 과정이다. 조선 효종과는 관계가 없다.

③ X 해설 젊은 문신을 다시 교육한 초계문신제는 정조가 규장각에서 운영하였다. 효종 때의 일이 아니다.

④ X 해설 백두산정계비를 세워 청과 국경을 정한 것은 1712년 숙종 때다. 효종의 일이 아니다.

⑤ X 해설 기유약조를 맺어 일본과 무역을 다시 시작한 것은 1609년 광해군 때다. 효종보다 앞선 왕의 일이다.

26 조선후기 · 조선 후기의 상업과 장시 정답 ②

① O 해설 일기에 담배를 심고, 목화밭에 김을 매고, 모내기(이앙)를 걱정하는 모습이 나온다. 담배 같은 상품 작물과 모내기가 널리 퍼진 조선 후기의 일기다. 조선 후기에는 숙종 때부터 상평통보가 전국에서 돈으로 쓰였으므로 이 시기의 모습이 맞다.

② X 해설 동시전은 신라 지증왕 때(509) 서울 경주의 시장(동시)을 관리하려고 둔 관청이다. 조선 후기와는 천 년 넘게 떨어진 일이므로 이 시기의 경제 모습이 아니다.

③ O 해설 공인은 대동법이 시행된 뒤 나라에서 받은 대동미로 관청이 쓸 물건을 사서 바치던 상인이다. 대동법은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작해 숙종 때 전국으로 넓혀졌으니 조선 후기의 모습이 맞다.

④ O 해설 보부상은 봇짐이나 등짐을 지고 여러 장시를 돌며 물건을 팔던 상인이다. 조선 후기에는 장시가 전국에 천 곳 넘게 생겨 보부상의 활동이 활발했다.

⑤ O 해설 조선 후기에는 청과 맞닿은 국경 지대에서 공식 무역인 개시와 몰래 하는 사무역인 후시가 함께 이루어졌다. 의주의 중강 개시, 책문 후시 등이 대표적이다.

27 통합 · 궁궐과 성곽 정답 ④

① X 해설 일제가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고 이름까지 창경원으로 낮춘 곳은 창경궁이다. 자료의 궁궐은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흥선 대원군이 다시 지은 경복궁이므로 맞지 않다.

② X 해설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6)는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렸다. 경복궁에서 열린 회의가 아니다. 경복궁에 세워진 것은 조선 총독부 건물이다.

③ X 해설 도성 서쪽에 있어 서궐이라 불린 궁궐은 광해군 때 지은 경희궁이다. 경복궁은 도성의 북쪽에 있어 북궐이라고 불렸다.

④ O 해설 임진왜란 때 불탄 뒤 흥선 대원군이 다시 지었고, 일제가 근정전 앞을 막고 조선 총독부 건물을 세운 궁궐은 경복궁이다. 일제는 1915년 이곳의 건물을 헐어 내고 조선 물산 공진회를 열어 식민 통치를 자랑했다.

⑤ X 해설 태종이 한양으로 다시 도읍을 옮기면서 새로 지은 궁궐은 창덕궁이다. 경복궁은 태조 때 한양으로 처음 도읍을 정하며 지은 정궁이다.

28 근대 ·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정답 ④

① X 해설 이용태는 1894년 고부 농민 봉기를 조사하러 안핵사로 내려와 오히려 농민을 탄압해 동학 농민 운동이 커지게 했다. 자료의 제너럴셔먼호 사건(1866)과는 관계가 없다.

② X 해설 이원익은 광해군 때(1608)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하자고 건의한 사람이다. 19세기 후반의 사건이 끼친 영향이 될 수 없다.

③ X 해설 신유박해는 1801년 순조 때 일어난 천주교 탄압으로 정약종 등이 처형되었다. 1866년 제너럴셔먼호 사건보다 훨씬 앞선 일이다.

④ O 해설 평양 대동강에 들어온 미국 상선이 약탈하자 평안 감사 박규수가 관민과 함께 배를 불태웠다. 이것이 제너럴셔먼호 사건(1866)이다. 미국은 이를 구실로 1871년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함대를 보내 강화도를 침략했다(신미양요).

⑤ X 해설 황사영 백서 사건은 1801년 신유박해 때 황사영이 외국 군대를 불러 달라는 편지를 북경에 보내려다 들킨 일이다. 1866년 사건의 영향이 아니다.

29 근대 · 갑신정변 정답 ①

① O 해설 우정국 개업식 연회 때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 급진 개화파가 일으킨 사건은 갑신정변(1884)이다. 정변이 사흘 만에 실패한 뒤 일본은 공사관이 불탄 책임을 물어 1885년 조선과 한성 조약을 맺고 배상금을 받아 냈다.

② X 해설 신식 군대 별기군은 1881년에 만들어졌다. 1884년 갑신정변보다 앞선 일이다. 별기군은 일본인 교관에게 훈련을 받았고, 구식 군인의 불만을 키워 임오군란(1882)의 원인이 되었다.

③ X 해설 김윤식이 영선사로 청에 가서 무기 만드는 기술을 배운 것은 1881년이다. 갑신정변 이전의 일이다. 영선사가 배워 온 기술로 1883년 무기 공장인 기기창을 세웠다.

④ X 해설 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한 운요호 사건은 1875년이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1876년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으므로 갑신정변보다 훨씬 앞선다.

⑤ X 해설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아문은 1880년에 설치되었다. 갑신정변 이전의 일이다. 통리기무아문은 1882년 임오군란 때 잠시 없어졌다.

30 통합 · 인물 통합 정답 ⑤

① X 해설 (가)는 왕명을 받아 삼국의 역사를 정리해 바치며 올린 글이니,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다.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사귀며 성리학을 들여온 사람은 고려 말의 이제현이다.

② X 해설 칠대실록 편찬에 참여하고 사학인 문헌공도(9재 학당)를 세운 사람은 고려 문종 때의 최충이다. 김부식과는 다른 인물이다.

③ X 해설 (나)는 규장각에서 일하며 발해의 역사를 9개 부분으로 엮은 발해고의 저자 유득공이다. 금석학을 연구해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힌 사람은 추사 김정희다.

④ X 해설 (다)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본 신채호다. 한국통사를 쓰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 제2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박은식이다.

⑤ O 해설 조선상고사에서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한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의 주필로 활동했다. 또 의열단의 부탁으로 쓴 조선 혁명 선언(1923)에서 민중의 직접 혁명으로 일제를 몰아내자고 주장했다.

31 통합 · 시대 통합 정답 ②

① X 해설 ㉠은 김부식이 왕명으로 엮은 삼국사기다. 불교 이야기를 중심으로 옛 설화를 많이 실은 책은 일연의 삼국유사다.

② O 해설 삼국사기는 왕의 기록인 본기, 연표, 제도와 문화를 다룬 잡지, 인물 이야기인 열전으로 이루어진 기전체 역사책이다. 그래서 ㉠의 설명으로 옳다.

③ X 해설 ㉡은 유득공의 발해고다.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한 것은 조선왕조실록이다. 발해고는 유득공이 발해의 역사를 군고·신고·지리고 등 9개 부분으로 엮은 책이다.

④ X 해설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의 일생을 서사시로 노래한 것은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다. 발해고와는 다른 작품이다. 동명왕편은 고려 무신 집권기에 지어져, 고구려를 이은 나라라는 자부심을 담았다.

⑤ X 해설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 조선으로 잡은 책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등이다. 삼국사기는 단군 이야기를 싣지 않았고, 발해고도 발해의 역사를 다룬 책이다.

32 조선후기 · 동학의 창시 정답 ①

① O 해설 교조 최제우가 처형된 뒤 2대 교주로 교세를 넓히고 손병희에게 도를 넘겨준 해월 최시형의 종교는 동학이다. 최시형은 최제우의 글을 모아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펴냈고, 동학은 이 둘을 경전으로 삼았다.

② X 해설 항일 무장 단체 중광단을 만든 것은 대종교다. 대종교는 단군을 믿는 종교로 나철이 창시했다. 중광단은 1911년 서일 등이 만주에서 만들었고, 뒤에 북로 군정서로 이어졌다.

③ X 해설 박중빈을 중심으로 저축 운동, 허례허식을 없애는 새생활 운동을 펼친 종교는 원불교다. 원불교는 1916년 박중빈이 전라남도 영광에서 열었다.

④ X 해설 배재 학당은 1885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서울에 세운 학교다. 동학과는 관계가 없다. 동학은 서양 종교인 천주교(서학)에 맞서 동쪽의 학문이라는 뜻으로 이름 붙였다.

⑤ X 해설 1886년 조선과 프랑스가 조약을 맺으면서 천주교의 포교가 사실상 허용되었다. 동학이 아니라 천주교에 대한 설명이다.

33 근대 · 경제적 구국 운동 정답 ②

① X 해설 독립문은 독립 협회가 1896년부터 짓기 시작해 1897년에 완성했다. 1904년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맞선 이 호소문과는 관계가 없다.

② O 해설 1904년 일본이 우리 땅의 황무지를 개간할 권리를 요구하자 보안회가 만들어져 반대 운동을 벌였다. 보안회는 집회를 열고 각국 공사관에 호소하며 일본의 요구를 물리쳤으므로 이 자료로 알아보기에 알맞다.

③ X 해설 조일 통상 장정은 1883년 조선과 일본이 맺은 무역 규정으로, 관세와 방곡령에 관한 조항을 담았다.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과는 거리가 멀다.

④ X 해설 화폐 정리 사업은 1905년 재정 고문 메가타가 실시해 한국 상인에게 큰 피해를 준 일이다. 황무지 개간권 반대와는 다른 주제다.

⑤ X 해설 황국 중앙 총상회는 1898년 서울 상인들이 외국 상인의 침투를 막으려고 만든 단체다. 1904년 황무지 개간권 반대 호소문과는 맞지 않다.

34 근대 · 항일 의병 운동 정답 ①

① O 해설 자료는 대군주 폐하가 외국 공사관에 옮겨 가 있으니 의병을 일으켜 궁궐로 모셔 오자는 내용으로, 을미의병 무렵의 글이다. 을미의병은 1895년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분노해 일어났으므로 그 배경이 된다.

② X 해설 을사늑약(1905)은 외교권을 빼앗긴 조약으로, 을사의병이 일어난 배경이다. 고종을 대군주라 부르던 1895~1896년의 을미의병보다 뒤의 일이다.

③ X 해설 용암포 사건(1903)은 러시아가 압록강 어귀 용암포를 차지하고 조차를 요구한 일로, 러일 전쟁의 배경이 되었다. 을미의병과는 관계가 없다.

④ X 해설 헤이그 특사 파견(1907)은 고종이 강제로 물러나는 구실이 되었고, 이어 정미의병이 일어났다. 을미의병보다 훨씬 뒤의 일이다.

⑤ X 해설 대한 제국 군대 해산(1907)으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정미의병이 커졌다. 을미의병의 배경이 아니다. 1907년 7월 한일 신협약 뒤 8월에 군대가 해산되었다.

35 근대 · 대한 제국과 광무개혁 정답 ①

① O 해설 원수부는 1899년 황제가 군대를 직접 거느리려고 만든 기구로, 대한 제국 광무개혁의 하나다. 지계아문은 1901년 땅 주인에게 소유 증명서인 지계를 내주려고 설치했으므로 원수부 설치 이후의 일이다.

② X 해설 군국기무처는 1894년 제1차 갑오개혁을 이끈 기구다. 1899년 원수부 설치보다 앞선다. 군국기무처는 과거제와 신분제를 없애는 개혁을 추진했다.

③ X 해설 5군영을 무위영과 장어영 2영으로 줄인 것은 1881년 개화 정책 때의 일이다. 원수부보다 훨씬 앞선다. 이 개편으로 대우가 나빠진 구식 군인의 불만이 임오군란으로 이어졌다.

④ X 해설 한성 사범 학교는 1895년 교육 입국 조서가 나온 뒤 교사를 길러 내려고 세운 학교다. 1899년보다 앞선 일이다. 이처럼 근대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갑오·을미개혁 때다.

⑤ X 해설 건양은 을미개혁 때 정해 1896년부터 쓴 연호다. 대한 제국이 세워지며 연호가 광무로 바뀌었으므로 원수부보다 앞선다. 1897년 대한 제국을 세우면서 쓴 연호가 광무이고, 원수부는 그 뒤인 1899년에 설치되었다.

36 일제 · 1930년대 만주 무장 투쟁 정답 ③

① X 해설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이긴 것(1920)은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와 홍범도 부대 등이다. 자료의 부대는 지청천이 총사령인 한국 독립군이다.

② X 해설 미국 OSS와 손잡고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한 것은 한국광복군이다. 한국 독립군과는 다른 부대다. 한국광복군은 1940년 충칭에서 임시 정부의 군대로 창설되었고, 일본이 항복해 작전을 실행하지는 못했다.

③ O 해설 한국대독립당이 만들고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둔 부대는 한국 독립군이다.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손잡고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1933)에서 일본군을 이겼다.

④ X 해설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는 1938년 김원봉이 만든 조선 의용대다. 만주에서 활동한 한국 독립군과는 다르다. 조선 의용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커우에서 창설되었다.

⑤ X 해설 대한 국민회군 등과 힘을 합쳐 봉오동 전투(1920)에서 이긴 것은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이다. 봉오동 전투에서 진 일본군은 보복으로 독립군 토벌에 나섰고, 이것이 청산리 전투로 이어졌다.

37 일제 · 토지 조사 사업과 회사령 정답 ③

① X 해설 신문지법은 1907년 통감부 시기에 만들어 신문을 검열하고 통제한 법이다. 회사령이 시행되기 전의 일이다. 1910년대에도 이 법으로 언론이 통제되었지만, 법이 만들어진 것은 국권 피탈 이전이다.

② X 해설 미쓰야 협정은 1925년 조선 총독부와 만주 군벌이 독립군을 잡아 넘기기로 맺은 협정이다. 회사령이 폐지된 1920년 뒤의 일이다.

③ O 해설 회사를 세울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한 법령은 1910년에 만든 회사령이다. 회사령이 시행된 1910년대에 일제는 토지 조사 사업(1910~1918)을 벌여 많은 땅을 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④ X 해설 경성 제국 대학은 1924년에 세워졌다. 회사령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1920년 뒤의 일이다. 일제는 한국인의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막으려고 이 대학을 세웠다.

⑤ X 해설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은 1941년 독립운동가를 언제든 가둘 수 있도록 만든 법령이다. 1930년대 말 이후 민족 말살 통치 시기의 일이다.

38 일제 · 1910년대 국내 비밀 결사 정답 ②

① X 해설 자료의 단체는 박상진이 이끌며 국권 회복을 위해 부잣집에서 군자금을 모은 대한 광복회(1915)다. 중일 전쟁(1937) 직후에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다.

② O 해설 대한 광복회는 1915년 대구에서 박상진을 총사령으로 조직되었다. 총사령·부사령 등을 둔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 결사로, 군자금을 모으고 친일 부호를 처단했다.

③ X 해설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보낸 단체는 상하이의 신한 청년당이다. 신한 청년당의 활동은 2·8 독립 선언과 3·1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④ X 해설 일제가 꾸며 낸 105인 사건(1911)으로 무너진 단체는 신민회다. 신민회는 안창호, 양기탁 등이 만든 비밀 결사로, 대성 학교와 오산 학교를 세우고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마련했다.

⑤ X 해설 만민 공동회를 열어 러시아 등 열강의 이권 침탈을 비판한 단체는 독립 협회다. 독립 협회는 1896년 서재필 등이 만들고 독립문을 세웠다.

39 일제 · 3·1 운동 정답 ⑤

① X 해설 자료는 천도교·기독교 신자들이 서명한 독립 선언서가 뿌려지고 학생과 민중이 만세를 부른 3·1 운동(1919)의 보고다. 간도 참변(1920)은 일본군이 독립군을 쫓으며 간도의 한인을 학살한 사건으로, 3·1 운동 뒤의 일이다.

② X 해설 국민 대표 회의(1923)는 임시 정부의 진로를 두고 상하이에서 열린 회의다. 3·1 운동 뒤의 일이다. 회의는 임시 정부를 고치자는 개조파와 새로 만들자는 창조파가 맞서다 성과 없이 끝났다.

③ X 해설 브나로드 운동은 1931년부터 동아일보가 이끈 농촌 계몽 운동이다. 3·1 운동의 배경이 될 수 없다. 학생들이 방학 때 농촌으로 가서 한글을 가르치고 미신을 없애자는 운동을 벌였다.

④ X 해설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은 1927년 조선 노농 총동맹이 나뉘면서 만들어졌다. 3·1 운동 뒤의 일이다. 노동 운동과 농민 운동이 커지면서 각자의 조직으로 나뉜 것이다.

⑤ O 해설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독립 선언서를 발표했다. 이 2·8 독립 선언은 국내에 알려져 3·1 운동이 일어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40 일제 · 일제 강점기의 문학과 예술 정답 ②

① X 해설 소설 상록수를 동아일보에 연재한 사람은 심훈이다. 청포도를 쓴 이육사와는 다른 인물이다. 상록수는 농촌 계몽 운동에 힘쓰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② O 해설 시 청포도를 쓰고, 본명이 이원록이며 조선은행 대구 지점 폭탄 의거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른 (가)는 이육사다. 이육사는 광야, 절정 같은 저항시를 남기고 1944년 베이징의 일본 감옥에서 숨졌다.

③ X 해설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 대장(일왕의 장인)을 독검으로 찌른 사람은 조명하다(1928). 조명하는 붙잡혀 1928년 타이베이에서 순국했다.

④ X 해설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한민국 건국 강령(1941)을 만든 사람은 조소앙이다. 삼균주의는 정치·경제·교육에서 모든 사람이 고르게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⑤ X 해설 정약용의 글을 모은 여유당전서를 펴내며 조선학 운동을 벌인 사람은 정인보, 안재홍 등이다. 1930년대 중반 정약용을 기리는 사업과 함께 일어난 이 운동은 우리 고유의 학문 전통을 찾으려 했다.

41 일제 · 의열단 정답 ③

① X 해설 김구가 상하이에서 만든 단체는 한인 애국단(1931)이다. 자료의 단체는 김원봉이 단장인 의열단이다. 한인 애국단의 이봉창, 윤봉길이 1932년 의거를 일으켰다.

② X 해설 비밀 행정 조직인 연통제를 운영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다. 연통제는 국내와 연락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비밀 조직망이었다.

③ O 해설 단장 김원봉과 함께 일본 궁성 앞 이중교에 폭탄을 던진 김지섭의 단체는 의열단이다. 의열단은 신채호가 쓴 조선 혁명 선언(1923)을 활동 지침으로 삼아 일제 기관 파괴와 요인 처단에 나섰다.

④ X 해설 신흥 무관 학교는 신민회 회원들이 만주에 세운 독립군 양성 학교다. 의열단의 단원 가운데 이 학교 출신이 많지만, 학교를 세운 단체는 의열단이 아니다.

⑤ X 해설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내려 한 단체는 임병찬의 독립 의군부다. 독립 의군부는 고종의 밀지를 받아 1912년 임병찬이 조직했다.

42 일제 ·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정답 ④

① X 해설 순종의 장례일에 가두시위를 벌인 것은 6·10 만세 운동(1926)이다. 자료는 광주 학생의 석방을 요구하는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격문이다.

42 해설 계속 정답 ④

② X 해설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에 영향을 준 것은 1919년 3·1 운동이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그보다 10년 뒤의 일이다. 3·1 운동 뒤 여러 곳의 임시 정부가 합쳐져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세워졌다.

③ X 해설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는 구호는 1920년대 물산 장려 운동의 구호다. 물산 장려 운동은 우리가 만든 물건을 쓰자는 경제 자립 운동으로 평양에서 시작되었다.

④ O 해설 1929년 광주에서 한일 학생의 충돌로 시작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신간회가 진상 조사단을 보내고 민중 대회를 계획하는 등 지원하면서 전국으로 퍼졌다. 3·1 운동 이후 가장 큰 민족 운동이었다.

⑤ X 해설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 단체에서 격려 전문을 받은 것은 1929년 원산 총파업이다. 원산 총파업은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때린 일로 시작되었다.

43 일제 ·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 정답 ④

① X 해설 통감부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은 뒤 1906년에 설치되었다. 자료의 창씨개명은 1940년부터 시행된 일이므로 그 이후의 정책이 아니다.

② X 해설 조선 태형령은 1912년 무단 통치 때 한국인에게만 매질을 할 수 있게 한 법령이다. 1920년에 폐지되었으므로 창씨개명 이후의 일이 아니다.

③ X 해설 헌병 경찰제는 1910년대 무단 통치의 상징으로, 3·1 운동 뒤 1920년에 보통 경찰제로 바뀌었다. 창씨개명보다 앞선 일이다.

④ O 해설 일제는 1939년 조선 민사령을 고쳐 한국인에게 일본식 성과 이름을 쓰게 했다(창씨개명).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자 1944년에는 여자 정신 근로령을 공포해 여성까지 군수 공장 등에 강제로 동원했다.

⑤ X 해설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 일본이 한국의 토지와 자원을 빼앗으려고 세운 회사다. 창씨개명보다 30년 넘게 앞선다.

44 현대 · 좌우 합작 운동 정답 ③

① X 해설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만든 사람은 안창호다(1913). 자료의 (가)는 광복 직전 엔도 정무총감과 만나고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만든 여운형이다.

② X 해설 조선어 학회 사건(1942)으로 붙잡혀 옥고를 치른 사람은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등 조선어 학회 회원들이다. 여운형과는 관계가 없다.

44 해설 계속 정답 ③

③ O 해설 광복 직전 총독부와 교섭해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만든 여운형은, 1946년 김규식과 함께 좌우 합작 위원회를 조직했다. 좌익과 우익이 힘을 합쳐 통일 정부를 세우려 한 것이다.

④ X 해설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1948)는 제헌 국회가 친일파를 처벌하려고 만든 기구로, 김상덕 등이 활동했다. 여운형은 1947년에 암살되어 여기서 활동하지 않았다.

⑤ X 해설 미국에서 돌아와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를 이끈 사람은 이승만이다(1945). 이승만은 1946년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했다.

45 현대 · 6·25 전쟁의 전개 정답 ③

① X 해설 ㄱ과 ㄴ을 고른 답이다. ㄴ은 맞지만 ㄱ이 틀렸다. 대동강 철교가 끊긴 사진 속 (가) 전쟁은 6·25 전쟁인데, 미국이 한반도를 방위선에서 뺀 애치슨 라인은 전쟁 전인 1950년 1월에 발표되었다.

② X 해설 ㄱ과 ㄷ을 고른 답이다. ㄷ은 맞지만, 애치슨 라인 발표(1950.1)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일이라 ㄱ이 틀렸다.

③ O 해설 ㄴ과 ㄷ이 옳다. ㄴ — 1950년 9월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를 뒤집었다. ㄷ — 1952년 피란 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둘 다 6·25 전쟁 중의 일이다.

④ X 해설 ㄴ과 ㄹ을 고른 답이다. ㄹ이 틀렸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는 광복 직후인 1945년 12월에 열려 신탁 통치 문제를 결정한 회의로, 6·25 전쟁보다 앞선다.

⑤ X 해설 ㄷ과 ㄹ을 고른 답이다. ㄷ은 맞지만,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1945.12)는 전쟁 전의 일이라 ㄹ이 틀렸다.

46 현대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정답 ①

① O 해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 고속 도로는 1970년 박정희 정부 때 완공되었다. 이 무렵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7~1971)이 추진되어 수출과 공업이 빠르게 자랐다.

② X 해설 미국의 원조 물자인 밀가루·설탕·면화를 가공하는 삼백 산업이 발달한 것은 1950년대 이승만 정부 때다. 원조가 줄어드는 1950년대 말에는 경제가 어려워졌다.

③ X 해설 신한 공사는 1946년 미군정이 일본인이 남긴 땅을 관리하려고 세웠다. 박정희 정부보다 앞선다. 신한 공사는 1948년 해체되며 중앙 토지 행정처로 넘어갔다.

46 해설 계속 정답 ①

④ X 해설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를 실시한 것은 1993년 김영삼 정부다. 이로써 금융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자기 이름을 쓰게 되었다.

⑤ X 해설 최저 임금 위원회는 1980년대 후반 최저 임금법이 만들어진 뒤에 설치되었다. 박정희 정부 때의 일이 아니다.

47 현대 · 외환 위기와 이후의 경제 정답 ④

① X 해설 (가)는 농지 개혁법 제정(1949)과 한일 기본 조약 체결(1965) 사이다. 자료는 국제 통화 기금(IMF)에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발표로 1997년의 일이므로 이 시기가 아니다.

② X 해설 (나)는 한일 기본 조약(1965)과 수출 100억 달러 달성(1977) 사이다. 외환 위기로 IMF에 지원을 요청한 1997년과 맞지 않다.

③ X 해설 (다)는 수출 100억 달러 달성(1977)과 서울 올림픽(1988) 사이다. IMF 지원 요청은 그보다 뒤의 일이다.

④ O 해설 외환이 바닥나 국제 통화 기금(IMF)에 긴급 자금을 요청한 것은 1997년 11월 김영삼 정부 때다. 서울 올림픽(1988)과 노사정 위원회 구성(1998) 사이인 (라)에 들어간다.

⑤ X 해설 (마)는 노사정 위원회 구성(1998)과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체결(2007) 사이다. 노사정 위원회는 외환 위기를 이겨 내려고 만든 기구이므로 IMF 지원 요청은 그 앞의 일이다.

48 통합 · 지역사 정답 ①

① O 해설 관동팔경의 하나인 경포대는 강원도 강릉에 있다. 강릉에는 율곡 이이가 태어난 오죽헌이 있으니, 이 지역에서 가 볼 만한 곳으로 알맞다. 오죽헌은 어머니 신사임당의 친정집이기도 하다.

② X 해설 무령왕릉이 있는 송산리 고분군(지금의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충청남도 공주에 있다. 강릉이 아니다. 무령왕릉은 1971년 발굴되어 묘지석으로 무덤 주인이 밝혀진 백제의 벽돌무덤이다.

③ X 해설 어재연 부대가 신미양요 때 미군과 싸운 광성보는 인천 강화도에 있다. 광성보에서 어재연과 조선군 대부분이 전사했다.

④ X 해설 팔만대장경판을 보관한 해인사는 경상남도 합천에 있다. 팔만대장경판은 고려 때 몽골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물리치려고 새긴 것이다.

48 해설 계속 정답 ①

⑤ X 해설 삼별초가 마지막까지 몽골에 맞선 항파두리 항몽 유적은 제주도에 있다. 삼별초는 강화도와 진도를 거쳐 제주도로 옮겨 1273년까지 싸웠다.

49 현대 · 4·19 혁명 정답 ②

① X 해설 시민군이 조직되어 계엄군에 맞선 것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이다. 자료는 3·15 부정 선거와 김주열 학생의 죽음에 분노해 일어난 4·19 혁명(1960)이다.

② O 해설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마산에서 시작되었고,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전국으로 퍼졌다. 4·19 혁명 끝에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는(하야) 결과를 가져왔다.

③ X 해설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친 것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이다. 시민들의 요구에 밀려 정부는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였다.

④ X 해설 3선 개헌 반대 범국민 투쟁 위원회는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세 번 연임할 수 있게 헌법을 고치려 하자 이에 맞서 만들어졌다.

⑤ X 해설 3·1 민주 구국 선언은 1976년 유신 체제 아래에서 장기 독재를 비판하며 발표되었다. 김대중, 함석헌 등 재야 인사들이 명동 성당에서 발표했다.

50 현대 · 남북 기본 합의서 정답 ⑤

① X 해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바닷길로 시작되었고, 육로 관광은 2003년에 시작되었다. (나) 남북 기본 합의서(1991)보다 뒤의 일이다.

② X 해설 6·15 남북 공동 선언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 회담에서 발표되었다. 1991년 이후의 일이다.

③ X 해설 평창 동계 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여자 아이스하키)이 참가한 것은 2018년이다. 남북 기본 합의서보다 한참 뒤의 일이다.

④ X 해설 개성 공업 지구는 6·15 남북 공동 선언 이후 2000년대에 만들어졌다(2003년 착공). 1991년보다 뒤의 일이다.

⑤ O 해설 (가)는 7·4 남북 공동 성명 뒤 1972년 발족한 남북 조절 위원회, (나)는 1991년 채택한 남북 기본 합의서다. 그 사이인 1985년 전두환 정부 때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이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을 오갔다.